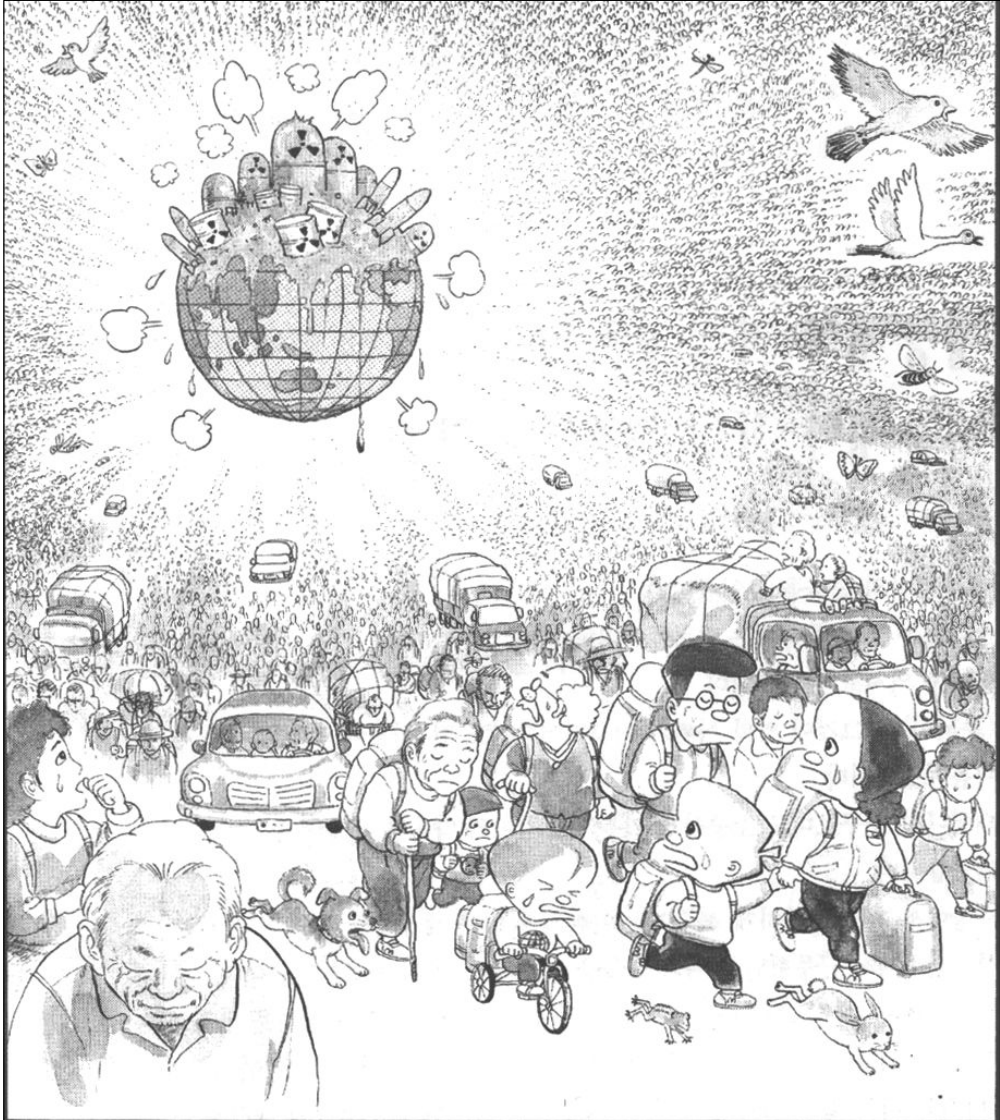


핵폐기장 바로알기



언젠가는 모두가 지구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반핵운동연대

2001. 6

1990년 안면도의 악몽을 기억하십니까.

1990년 11월, 인구 2만도 채 안 되는 작은 섬, 안면도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다치거나 연행되어갔습니다. 바로 정부의 잘못된 핵폐기장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었고 연대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면도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서산, 홍성으로 확산되었고 대학생들과 환경단체들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결국, 4일 만에 정부는 안면도 핵폐기장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고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승리하였습니다.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안면도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청하, 울진, 굴업도 등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 할 때에도 연대투쟁으로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선언합니다.

정부는 또 다시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핵폐기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다면 필요 없는 핵발전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된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핵폐기장 바로알기”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반핵운동연대는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한국반핵운동연대 2001. 6

글 읽는 순서

- 핵폐기물은 “죽음의 재”라고 알려진 방사성물질의 다른 이름입니다. 3
- 핵폐기물은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5
- 핵폐기장 건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화시킵니다. 9
- 핵폐기장 건설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12
- 핵폐기장은 무리한 핵발전소 건설계획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14
-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17
- 핵폐기장 대책위, 한국반핵운동연대 소개 19

핵폐기물은 “죽음의 재”라고 알려진 방사성물질의 다른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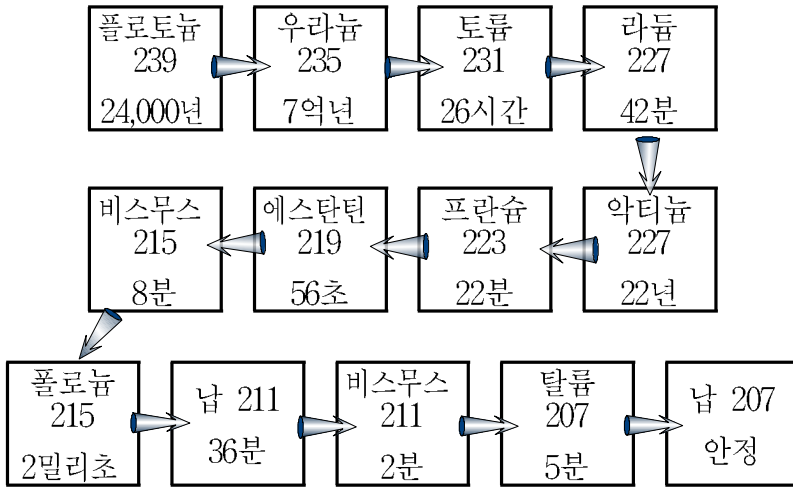
죽음의 재, 방사성 쓰레기 - 핵폐기물

정부가 핵폐기장을 만들어 보관하려는 것은 주로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방사선에 오염된 물품(중저준위 폐기물)과 우라늄235를 태우고 나온 핵쓰레기, 즉 죽음의 재(고준위폐기물)라고 불리는 방사성물질입니다.

우선 말의 뜻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폐기물(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물질로서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없어 생활권으로부터 격리하는 물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사성 물질은 아무런 색도 없고, 맛도 없어서 안전하다고 오해되지만, 단 몇 초라도 인간이나 자연환경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방사선이라는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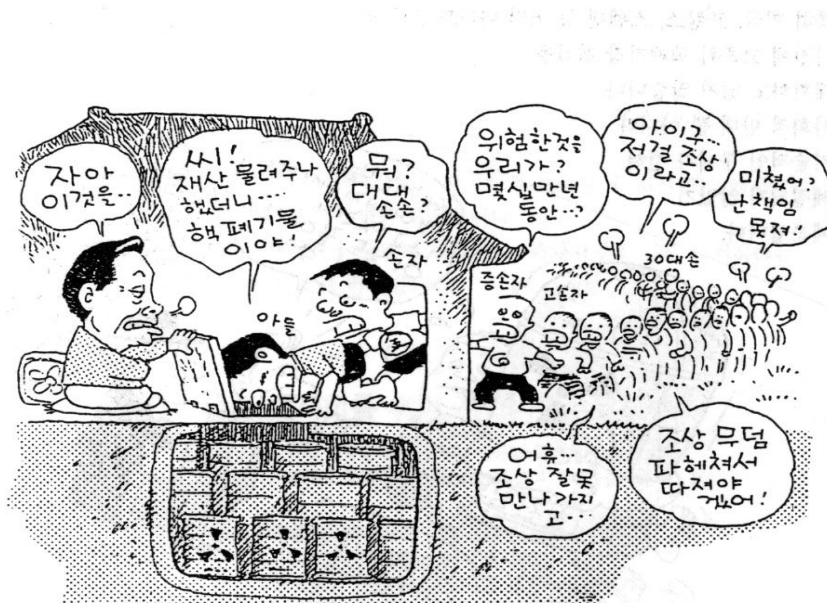
방사성물질이 내뿜는 방사선을 인간이 쬐면(피폭당하면) 즉시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일어나고, 수 일 또는 수 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 각종 암 등에 걸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우리 몸에 축적되고, 생식기에 작용해서 유산·사산과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독성이 오래가 자손대대로 그 피해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핵폐기물에는 플루토늄도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쌀 한 톨 분량으로도 100,000명 이상을 폐암환자”로 만들 수 있는 맹독성의 물질입니다.





플루토늄이 납이 되기까지는 수 억 년이 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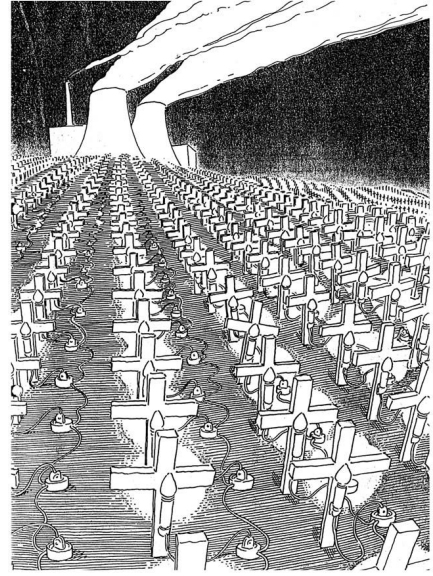
그리고 이런 방사선의 독성이 단지 반으로만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 십 초에서 수 억 년입니다. 플루토늄 239의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24,000년인데 중금속인 납으로 되기까지 수 억 년이 걸립니다. 자자손손 수십만세대 동안 핵폐기물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합니다. 반감기가 짧더라도 방사성물질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인간의 작은 실수로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핵폐기장 건설은 자자손손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핵폐기물은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핵폐기물은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골치덩어리입니다. 새 천년이 밝았다는 21세기, 복제인간을 만든다 우주여행을 간다고 할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핵폐기물의 독성이 없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 억 년 동안 인간과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핵폐기물을 콘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 속에 묻는 방식을 쓰는데, 이 경우 완전한 방수가 되지 않아서 방사성물질이 보관용기를 빠져나와 지하수를 따라 땅속으로 누출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암염층, 화장암 지층, 우주공간, 빙하, 바다에 처분하는 방식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누구도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핵폐기물의 독성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트리튬	탄소14	코발트 60	닉켈59	닉켈63	스트론튬 90	니오브 94	네크네튬 99	요오드 129	세슘 137	알파선 방사체	
반감기(년)	12	5730	5.3	7.5만	100	29	2만	21만	1600만	30	(433)	
잔존하는 독성 (Bq)	현재	210만	190만	460억	130만	7.7억	24억	300만	1.5만	2.8만	6억	530억
	30년후	37만	190만	9.1억	130만	6.3억	12억	300만	1.5만	2.8억	3억	500억
	300년후	-	180만	-	130만	9600만	120만	300만	1.5만	2.8만	3억	330억

저준위 핵폐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종류, 반감기(일본 록카쇼무라의 예)

정부가 건설하려는 핵폐기장은 중저준위 영구저장소와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입니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장은 임시저장소

5 핵폐기장 바로알기

라 하더라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 백년의 땅속 움직임도 예측하기 힘든데 수 억 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를 비롯한 세계의 환경단체들은 핵폐기물은 절대로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타오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고준위 핵폐기물은 섭씨 400도가 넘는, 아직도 핵분열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핵발전소에 처음 장착되기 전 보다 무려 백만 배나 강한 독성의 방사성물질로 변합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연료풀에서 몇 십년간 식히지만 임시저장고에 옮길 때에도 여전히 온도는 높고 핵분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타오르고 있는 핵연료를 고속도로와 집 옆의 일반도로로 이동해서 보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고준위 핵폐기장을 계획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무조건 믿으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한 과학자는 2001년 미국의 한 회의에서 한국땅 어디에도 지하수 문제와 인구밀도 때문에 핵폐기장을 건설할 곳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몇 군데 건설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방사성물질 누출사고로 지역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웰핵폐기장에서도 방사성물질 누출사고가 있었고 영국의 쉘라필드 핵시설 주변의 암과 백혈병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핵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 독성이 없어지는데는 오랜시간이 지나야 하는데 그 관리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이지만 계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장 사고, 그 사례들

- 구 소련의 첼라빈스크 핵폐기장 사고(1957년)

우랄산맥에 위치한 첼라빈스크의 고준위 핵폐기장 저장고가 1957년 가을 폭발하여 대규모 방사능 오염이 일어났다. 핵폐기물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열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이 반응에서 발생한 기체가 축적되어 결국은 폭발로 이어져 주변의 1000km²에 있던 숲, 초원, 호수 그리고 사람이 살던 지역이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이곳에 살던 주민 1만 여명은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다. 많은 마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고 32개의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다. 관청은 사람들이 오염된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집들을 모두 불태우고 파괴했다. 이곳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되었고, 주위 환경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들의 경로도 댐이나 운하를 통해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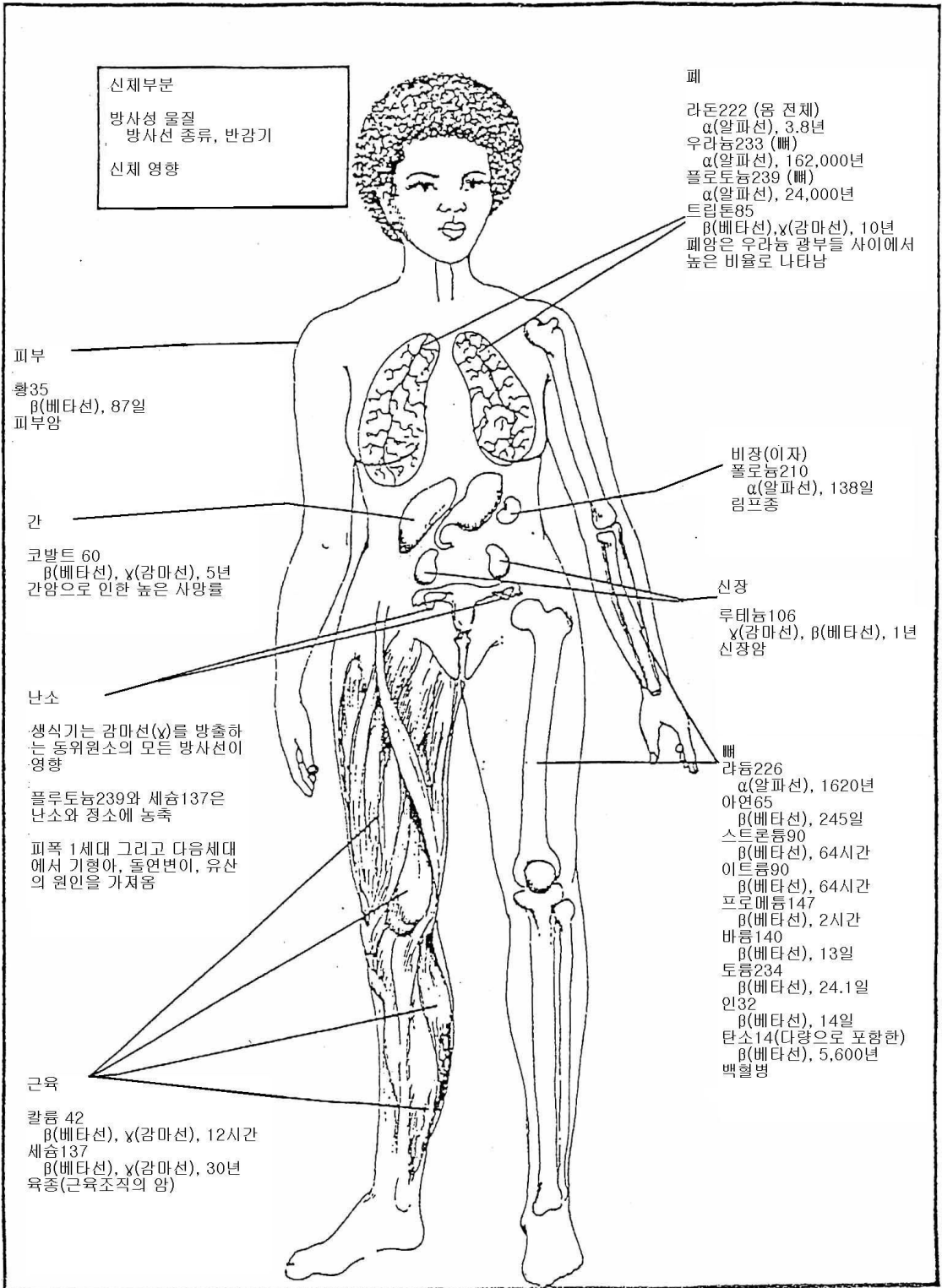
- 남아프리카 공화국 발부츠 핵폐기장 사고

1997년 7월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메일&가디언 신문은 발부츠 핵폐기장에서 여러 해 동안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왔다고 보도했다. 발부츠 핵폐기장에 저장되어 있는 핵폐기물 저장드럼이 부식되었고, 방사성물질들을 외부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콘크리트 블럭까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다. 남아공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으며, 또한 저준위 핵폐기물만 저장하기로 되어있던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고준위 핵폐기물도 다량 보관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 발부츠 지방은 연간 강수량이 극히 적다는 이유로 1990년 핵폐기장으로 지정되었으나 1997년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고, 이에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물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인근 펠린다바에서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물질이 발견되었으나 이 또한 늦게 알려졌다.

- 고리 핵발전소 핵폐기물 불법매립(1988. 1989)

1988년 12월 10일 고리 핵발전소 경계 밖 700m 지점의 주민거주지역에서 중저준위 핵폐기물 60드럼이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핵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에는 방사능 위험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매립장소도 식수원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다. 다음해인 1989년 3월에도 불법매립된 핵폐기물 드럼이 발견되었다.

신체에 축적되는 방사능 물질과 그 피해



핵폐기장 건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화시킵니다.

핵폐기장 건설로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거짓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농사짓고 고기잡던 일마저 못하게 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마을로 변하게 됩니다. 핵폐기장이 건설된 일본 로카쇼무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지역지원금 명목의 지역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는 핵폐기장 등 핵관련 시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지역교부금에 매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오면서 건물도 짓고 도로도 넓히지만 교부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핵관련 시설을 받아들이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핵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생산물들이 타지역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거나 아예 지역이름의 특산물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지역지원금으로 3000여억원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의료보험이 무료에, 학자금 지원되며 한가구당 몇억씩 이주비를 제공하며 농토와 어업권을 별도로 보상하는 등 핵폐기장을 들여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돈이 개인에게 지급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쓰이는 돈입니다.

구분	지원금규모(억원)			비고
	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기본지원	914	327	587	공공시설, 소득시설 등
특별지원	1,672	1,672	-	지역숙원사업 등
전기요금보조	242	35	207	주택용 및 산업용
주민복지지원	10	10	-	생활안정자금 저리용자
기업유치지원	91	13	78	기업자금 저리용자
계	2,929	2,057	872	

핵폐기장 건설에 따른 지역지원금 내역

지역지원금 중 상당부분은 도로포장 등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공사비, 사업비, 대국민 홍보비등이며, 공공시설과 지역사업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주민복지지원으로 지원되는 10억은 건설기간 5년 간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며 입니다. 또한, 지역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지역 단체장의 권한에 따라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협의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숙박업과 식당업 등 상업이 번성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건설되는 몇 년 동안은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하는 짧은 기간동안 물리는 사람들을 위해 빚을 얻어 가게를 새로 짓고 늘린 것은 고스란히 남게 되어 빚은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건설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폐기장이 운영되면서 마을에 남는 것은 핵쓰레기이며 이로 인해 자자손손 근심만이 남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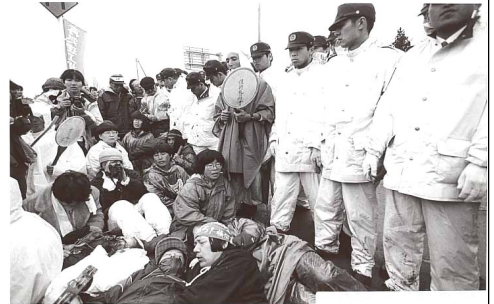


방사능 덩어리 핵폐기물을 수십만년 묻어두는 핵폐기장 건설

일본 로카쇼무라로부터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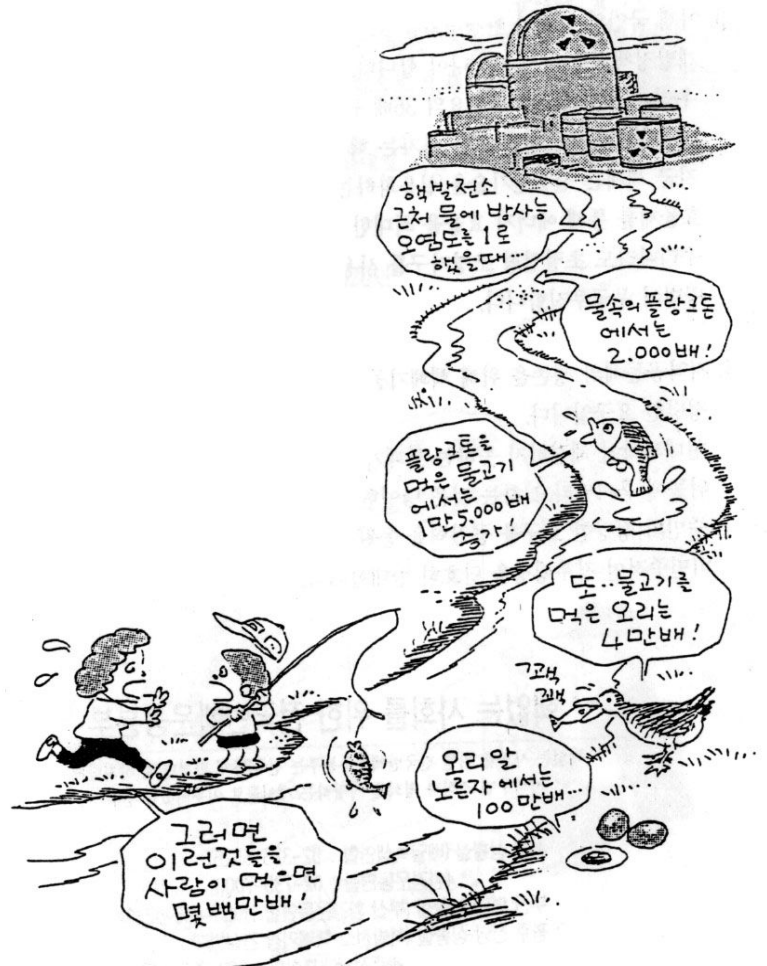
와타나베 마사히토 (로카쇼무라 주민, 히로사키 반핵회의 회원)

.....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촌에서 핵연료순환시설들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많은 운동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1991년 우라늄농축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2년 저준위핵폐기장을 가동하였고 93년에는 재처리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는 고준위 핵폐기물처분장을 가동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많은 핵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자 이처럼 재처리시설까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抗議のデザインを穿る人々

사용후 핵연료 반입을 저지하려는
일본 로카쇼무라 주민들



핵폐기장 건설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정부나 한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급한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정부와 한전은 핵폐기장이 곧 포화된다면서 핵폐기장 건설의 시급함을 강조했었습니다. 94년 예측대로라면 벌써 핵폐기물은 임시저장고를 채우고 넘쳤을 것입니다. 당시 한 언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데다 임시보관중인 핵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가 넘쳐나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반드시 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정부를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22일)



위 신문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전은 1994년에도 2001년이면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오늘 포화 상태에 이른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정부와 한전은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이 취소되자 핵폐기물을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로 공간이 충분하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핵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압축기술이 있으면서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라고 핵폐기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한전이 핵폐기물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포화예측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지금 주장하는 핵폐기물 포화예측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핵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면,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더 이상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은 그 부피를 줄여 보관하는 “유리고형화”라는 기술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 원전에서 나오는 핵쓰레기를 소각, 유리로 고형화해 쓰레기 부피를 20분의 1까지 줄이는 새로운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한국과 프랑스 공동으로 개발된다.... 핵폐기물 유리화 처리기술은 프랑스가 개발한 「직접 유도 전류 가열식 저온도」 방식을 사용해 소각시 발생하는 방사능 가스까지 흡수, 유리로 고형화하는 세계최초의 첨단 처리방식이다...”
(경향신문 1997년 5월 23일)

“... 핵폐기물 처리기술은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고형화시켜 안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난 3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관련기술의 개발에 상호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현기술보다 (핵폐기물의) 부피를 13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유리고형화 기술을 독자 개발, 관련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 1997년 7월 23일)

유리고형화 기술은 핵폐기물 부피를 1/20~1/30로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만으로도 향후 50년 동안 현재의 보관창고가 포화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08년이면 임시저장고가 포화되어 핵폐기장을 꼭 지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에도 핵폐기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주장하겠지요. 핵폐기물이 포화상태라고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핵폐기장은 무리한 핵발전소 건설계획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영광, 경상남도 고리(부산), 경상북도 월성(경주), 울진 등 4 지역에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입니다. 영광과 울진에 각 2기씩 4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정부는 앞으로 8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 핵발전소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폐기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고 가동중인 핵발전소도 점차 폐쇄해 나간다면 핵폐기장은 필요없습니다.

핵추진론자들은 핵발전소가 아니라면 전기를 전혀 쓰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향상만으로도 핵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세계최대의 해양풍력발전소
풍력에너지는 바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미국의 델라웨어대학의 에너지환경정책센터와 한국의 시민환경연구소 경북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공동연구’를 수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조명, 제조업체의 공정, 냉장고, 난방, 에어컨 등 각 분야에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핵발전소 17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엔 상업적인 풍력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은 덴마크, 독일, 스페인 등 유럽지역의 풍력자원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너지기술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6억 6천만MWh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1999년 현재 약 2억 1천 4백만MWh)의 3배에 달합니다. 이 잠재량 중 현재의 풍력기술로 쉽게 이용가능한 5%만 개발한다고 해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14%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난 5년 간 풍력발전은 매년 30%가 넘는 성장을 보였고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전 세계 전력수요의 10%를 풍력이 공급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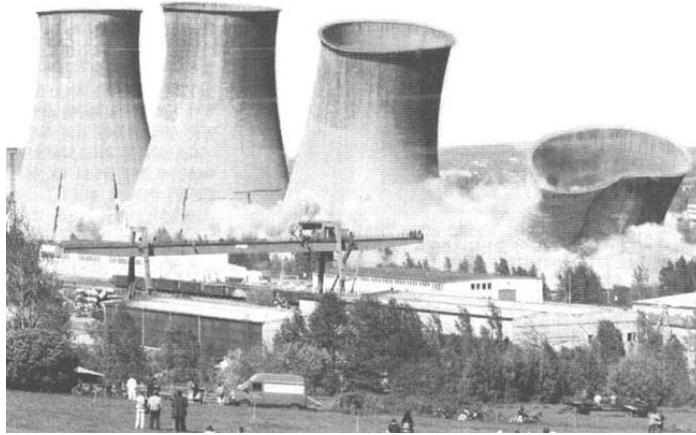
태양광의 미래 또한 밝습니다. 에너지대안센터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을 위해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과 건물에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잠재적인 태양광 발전량은 연간 4천1백만MWh로 1999년 국내 전력소비량의 약 20%에 달합니다.



지붕에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바람이나 태양을 이용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핵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2018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한 독일이 먼 나라 이야기

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핵발전소가 없어지면 핵폐기장은 필요 없습니다.



작센주 하겐베르더 핵발전소의 냉각탑 폭파장면
(세계 일보 99.5.7일자)

스웨덴으로부터의 메시지

Neils Axel Morner(스톡홀름대학 지질학 연구소)

.... 우리는 이미 대량의 핵폐기물을 가졌으며 또 매일 대량의 핵폐기물을 만들고 있다. 핵산업이 존재하는 한 막대한 핵폐기물은 계속 늘기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처분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폐기물을 만드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현실에서 오직 한가지 방법은 우선 각종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 계획은 각국에서 폐기하고 이후 핵폐기물에 의한 자연과 생명의 파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핵폐기장은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핵발전소는 수도권과 같은 대규모 도시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쓰지 않고 전기를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발전소를 가동해서 전기를 쓰고 이익을 보는 지역에서 핵폐기물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핵발전소도 필요 없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평안히 사는 지역에 핵폐기장을 짓겠다는 것은 환경정의에 어긋나는 이기적인 처사입니다. 핵폐기장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수도권에 건설하는 것이 옳습니다.

핵폐기장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단지 많은 돈으로 주민을 유혹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아직 핵폐기장이 건설되지도 않고, 부지도 마련하지 못했지만 핵폐기장 건설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주민간의 갈등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함께 해 온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공동체와 생존권을 위해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이런 방식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어디에서나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미국의 경우 동부에 핵발전소의 90%이상이 몰려있는데 핵폐기장은 서부의 인디언이 사는 마을에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의 지하수 방사능 기준이 4밀리렘인데 이곳에는 25밀리렘으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어서 9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국내 일년간 피폭기준은 10밀리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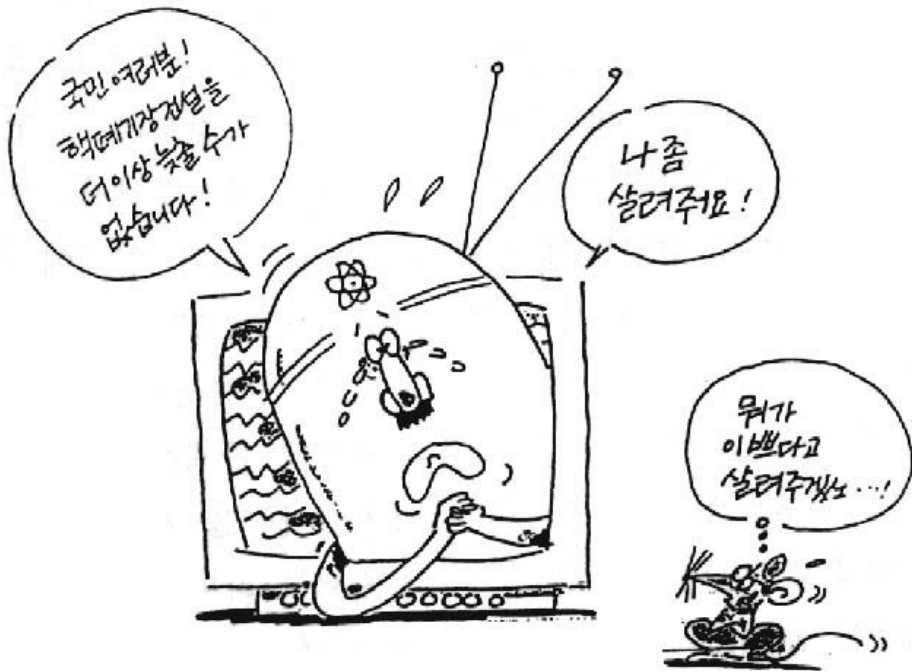
만에 하나 핵폐기장이 건설되었을 경우, 울진, 월성, 고리, 영광 4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핵발전소에서는 해상으로 혹은 육로로 핵폐기물이 이송될 것입니다. 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핵폐기물 이송은 2,000톤 이상의 배를 이용합니다. 지난 5년 동안 1,000톤 이상의 599척의 배에서 해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핵폐기물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통해서도 이동합니다. 핵폐기장이 건설되고 핵폐기물이 이동되면 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삶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운동이며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지역을 지키는 핵폐기장 대책위를 소개합니다

핵폐기장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격려의 전화나 지지의 말을 전하셔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호남지역핵폐기장건설반대대책위(17개 단체)

- 집행위원장 : 위의환 장흥환경운동연합 의장
- 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F.525-4294
담당자 한성국실장 kwangju@kfem.or.kr
- 참가단체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YMCA,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영광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추방운동협의회,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영광교구, 전남대학교 우리강토보존회,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연합, 목포환경연합, 장흥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추), 광양환경연합),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사제모임

* 진도핵폐기장반대대책위원회 061-542-7997

- 대표 : 조권준 대표 / • 집행위원장 : 서만석

* 강진핵폐기장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061-433-1140

- 사무국장 : 윤영선

* 핵폐기장반대를위한 고흥군민대책위원회 063-564-1922

- 사무국장 : 이대정

* 핵폐기장반대 영광군민대책위원회 061-353-9070

- 집행위원장 정용안

한국반핵운동연대를 소개합니다.

한국반핵운동연대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핵산업을 추방하고, 환경과 생명을 보전하는 대안 에너지체계를 수립하여 인류의 평화로운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15여개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http://www.antinuke.org>

- 공동대표 : 김성근교무님, 이영선신부님, 유영일신부님
- 간사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F.730-1240 담당자 양원영간사 yangwy@kfem.or.kr
- 참가단체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서울, 부산),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에너지대안센터, 영광핵추방협의회, 울진원전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투쟁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환경센터 (서울, 부산),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중앙, 대구, 경주, 부산, 울산, 광주)

한국반핵운동연대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Tel: 735-7000 Fax: 730-1240

<http://www.antinuke.org>

Copyright by The Korean Solidarity for Anti-Nuclear Movement